



### 삼국유사인문학여행(遊行)

통치자들의 이름과 연호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 역사는 사관의 ‘마음’에 좌우

#### 1. 황명 혹은 왕명의 함의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통치자의 명호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통치자는 전욱씨, 복희씨, 수인씨 등으로 명명된 이래 요임금과 순임금 등을 거쳐 하준 삼대의 우왕, 탕왕, 문왕과 무왕 및 주공 등으로 이어졌다. 은나라의 유민이 세운 노나라의 공자는 요·순과 우·탕과 문·무와 주공을 성인으로 추존하고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쳐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이 ‘황제’란 말을 창안한 이래 ‘황제’ 또는 ‘천자’는 중원의 통치자를 일컫는 대표적인 명호가 됐다. 이후 하준 삼대 이전의 통치자를 ‘삼황오제’(三皇五帝)라고 일컫는 것은 진시황 이래 명명된 ‘황제’란 명호를 소급 적용해 부른 것이다. 역사 이전 시대인 로마의 ‘황제’(집정관)나 일본의 ‘천황’(천왕)이란 명호 역시 중원의 ‘황제’ 혹은 ‘천자’에 준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최고통치자인 ‘단군’이란 명칭 역시 ‘천제’ 또는 ‘황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고조선 해체 이후 주변의 거수국(諸

國)들인 부여와 고구려 등은 한동안 최고통치자를 ‘단군’(檀君)이라고 불렀다. 단군은 천자(天子)이자 천군(天君)이었으며 제정일치 시대에 미래의 천문(天文)과 운기(運氣) 등을 예측하고 기우(祈雨)와 기청(祈諍) 등을 주재하는 제사장이자 무당이였다. 농경시대에는 이러한 기능을 지닌 자가 ‘가장 힘이 센 자’였다. 그 힘은 반드시 ‘하늘’과 매개돼 있었다. ‘해’(빛)가 떠있는 하늘은 통치자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늘은 의인화돼 천제(天帝)가 됐고 그 천제의 아들인 천자는 하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삼았다. 천자는 하늘과의 소통을 독점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냈다. 그러나 천인(天人)이었던 천제가 지상에 안착해 인간(人間)이 돼가면서 그 기능은 천자를 대신하는 제사장에게로 점차 옮겨갔다.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단군’이란 명칭은 부여와 고구려 및 주변국 등 거수국에서 한동안 원용됐으나 점차 거수국들이 자립해 가면서 통치자의 이름은 새롭게 불어지기 시작했다.

#### 고조선 단군은 황제의 다른 이름 단군은 제사장이자 무당

부여)들인 부여와 고구려 등은 한동안 최고통치자를 ‘단군’(檀君)이라고 불렀다. 단군은 천자(天子)이자 천군(天君)이었으며 제정일치 시대에 미래의 천문(天文)과 운기(運氣) 등을 예측하고 기우(祈雨)와 기청(祈諍) 등을 주재하는 제사장이자 무당이였다. 농경시대에는 이러한 기능을 지닌 자가 ‘가장 힘이 센 자’였다. 그 힘은 반드시 ‘하늘’과 매개돼 있었다. ‘해’(빛)가 떠있는 하늘은 통치자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늘은 의인화돼 천제(天帝)가 됐고 그 천제의 아들인 천자는 하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삼았다. 천자는 하늘과의 소통을 독점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냈다. 그러나 천인(天人)이었던 천제가 지상에 안착해 인간(人間)이 돼가면서 그 기능은 천자를 대신하는 제사장에게로 점차 옮겨갔다.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에도 ‘단군’이란 명칭은 부여와 고구려 및 주변국 등 거수국에서 한동안 원용됐으나 점차 거수국들이 자립해 가면서 통치자의 이름은 새롭게 불어지기 시작했다.

부여는 ‘해의 아들’[日子, 天子]인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이라 했고, 고구려는 ‘태왕’ 혹은 ‘대왕’이라 했다. 백제

를 가리키는 이름들이다.

#### 2. 불교식 왕명과 연호의 사용

불교식 왕명은 왕을 비롯해 왕실이 능동적으로 불교를 실행할 때 붙여질 수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의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반면 신라는 이차돈의 순교사건을 통해 어렵게 불교를 공인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불교가 공인된 이래 백제와 신라 등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년에 불교를 공인한 이래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백제는 침류왕 때에 불교를 공인(384)한 이래 성왕 때(523)부터 성(聖)왕 위덕(威德)왕 혜(惠)왕 법(法)왕으로 이어지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가야는 질지왕 때 불교를 공인(452)한 이래 불교식 왕명을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법흥’(法興)이라는 불교식 왕명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신라는 진흥(眞興) 진지(眞智) 진평(眞平) 선덕(善德) 진덕(眞德)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 능동적으로 불교 수용한 삼국 왕명도 불교식으로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불교식 왕명을 지어 사용했던 신라의 왕들이 모두 연호(年號)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적 보편성과 능동적 주체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불교식 왕명의 사용은 무열왕 때 유교식 왕명을 제정하기까지 140년간 지속됐다. 불교적 왕명이 제정되던 시기에 신라는 율령의 반포와 병부의 설치 및 불교의 공인과 영토의 확장 그리고 사찰의 건립을 통해 전성기를 구가했다.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룩한 대발해 역시 불교를 공인한 이래 고향 대조영(698~719) 때 불교를 수용한 이래 불교문화를 꽃피웠지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공에는 자신의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륵신앙을 이용해 스스로를 미륵불(彌勒佛)이라 일컫고 두 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과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고 했다.

과거의 중화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오직 중국만이 연호를 쓸 수 있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북부를 무대로 한나라와 후연 및 수와 당과 맞섰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영락(永樂)이라고 선포했다. 또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가’(延嘉)라는 연호도 아울러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과시했다. 백제 역시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있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銘文)에 적힌 ‘태화’(泰和)라는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또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과시했다. 반면 가야는 연호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사학자인 유득공의 <발해고>는 고구려를 이은 대발해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공예의 후고구려(태봉·마진)도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의 태조(왕건) 역시 고려를 건국하면서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선포했고, 광종은 준봉(峻峰)과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평양 천도를 주장하며 나라를 세웠던 묘청도 국호를 대위(大爲)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호의 제정이 해당 국가가 독립적인 나라임을 선언하는 하나의 ‘정체’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조선은 독자적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따랐다. 하지만 대한제국시대에는 광무(光武)와 융희(隆熙)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 3. 시대의 구분

해당 역사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가의 관점’(사관)과 ‘시대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가의 관점’과 ‘시대의 구분’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역사서에 담긴 사관 속에는 이미 시대 구분이 전제되어있으며, 시대 구분 속에는 사가의 관점이 투영되어있다. 사가의 관점은 우선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상통하며, 시대의 구분은 해당 시대의 특징(특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있다. 역사의 주체를 왕과 왕실에 두고 본다면 그 역사서는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 아래 역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반면 역사의 주체를 사대부(사림)와 같은 지식인으로 본다면 그 역사서는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반면 역사의 주체를 민중(민민)과 같은 피지배층으로 본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놓고 역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때문에 사관은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의 제일의 관건이며 시대 구분은 사가의 관점을 긴밀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왕실의 변화에 따라 상대·중대·하대로 시대 구분을 했다. 상대(上代, 시조~28대 진덕여왕, BCE. 57~CE. 654)는 원시부



인각사의 보각국사비각

#### 불교사관으로 시대구분한 일연 역사의 주체를 불자로 봐

족국가와 씨족 국가를 거쳐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골품 제도가 확립되던 때이다. 골품 제도가 성립되고 성골 왕실이 확립돼 왕위를 독점한 것은 매우 후대의 일이다. 중대(中代, 29대 무열왕~36대 혜공왕, 654~780)는 성골 왕통이 끝나고 무열왕계 왕실이 이어지던 때이다. 이 시기에는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왕권(專制王權)이 확립돼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하대(下代, 37대 선덕왕~56대 경순왕, 780~935)는 무열왕계 왕실이 끊어지고 내물왕계 진골 왕실이 주도한 때이다. 이 시기에 골품제도가 무너지고, 족당(族黨)이 형성되며 왕권이 쇠퇴해 호족(豪族)·해상 세력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무너졌다.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역사를 불교와 관련해 상고(上古)·중고(中古)·하고(下古) 시기로 구분했다. 상고(上古, 시조~22대 지증왕, BCE. 57~514)기는 불교 전래 이전으로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전단계이다. 중고(中古, 23대 법흥왕~28대 진덕여왕, 514~654)기는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고 골품제 아래 성골 왕실이 성립돼 소멸하는 때이다. 하고(下古, 29대 무열왕~56대 경순왕, 654~935)기는

불교식 왕명 사용이 끝난 뒤의 때이다. 하지만 하고기의 구분은 중대와 하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시대 구분은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편의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가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역사의 주체를 불자로 보고 불교와 관련해 시대를 구분한 일연의 불교사관과 역사의 주체를 유자로 보고 왕실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한 김부식의 유교사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연의 불교사관은 업설사관 혹은 연기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역사의 주체를 불교 또는 불자로 보고 역사의 동인인 ‘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현실적 인간의 행위에는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동시에 개인적 측면과 공동적 측면도 있다. 개인업은 공동업으로 확산되며 공동업은 개인업에 미쳐진다.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의 주체 의식을 형성한다는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삼국유사>에 투영된 일연은 불교사관은 불교 내지 불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여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주고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가깝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사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